

“확실한 성장동력은 조합원의 사기진작이다” ‘정당한 성과배분’ 대표가 통크게 결단하라!



조합은 사측과 8월30일 15시 '21년 단체교섭 제2차 본회의'를 속개했다. 이날 사측의 교섭태도는 한마디로 적반하장에 아직도 동문서답이다. 노동조합의 4개분야 9대요구안에 대해 어떠한 구체적이고 진전된 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이전 22차례 교섭회의에서 한 주장을 되풀이 했다. 사측의 주장은 “조합 요구안을 모두 수용

하면 7,000억원 이상 소요된다. 상반기 영업실적은 개선되었으나 하반기에는 하향 리스크가 있고, 투자여건과 대외변수가 있어 최적의 방안을 찾기 어렵다. 계속 검토중이다”는 말로 요약된다.

[4개분야 9대 요구안] 조합원의 열망이다. 즉각 수용하라!

이러한 사측의 태도는 그야말로 1만8천 조합원의 열망을 짓밟고 무시하는 처사다. KT는 지난해 영업이익 8,782억원을 달성했다. 이것은 일선 현장에서 조합원이 땀흘려 일하고 헌신한 성과이다. ‘그 성과에 대한 정당하고 공정한 배분’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주주에게는 전년도 당기순이익의 50%를 배당했다. 임원들에게도 상승한 주가연동에 의해 이미 경영성과급을 지급했다. 그런데 유독 조합원에게는 인색한 저의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일선 조합원의 분노와 허탈감을 경영진은 정녕 모르는가?

조합의 인내심은 한계에 달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사측에 엄중하게 촉구한다. 대표가 직접 통 큰 결단으로 노동조합의 요구안을 수용할 때 만이 진정한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조합은 8월30일 전국 각 지부에서 사측의 성실교섭을 촉구하는 출근선전전을 전개했다.